

울산 원각선원 ISO인증 획득

<국제품질경영시스템>

‘노인복지시설 매뉴얼 표준화’ 서비스 국제적 인정 받아

지역사회의 불교사회복지서비스가 국제 기준을 충족시켰다. 울산시 울주군 구미리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이사장 보연)이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00) 인증을 획득했다. 원각선원은 2월 1일 법원에서 운영하는 연화노인요양원 3층 강당에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인증서 수여식과 이를 기념하는 헌관식 등으로 진행됐다.

원각선원이 이번에 인증 받은 것은 ‘노인복지시설 매뉴얼 표준화’다. 이는 복지서비스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식사와 운동, 여가 등 노인들의 세계

한 생활까지 매뉴얼을 통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매뉴얼의 정착으로 산발적 서비스로 인해 어르신들이 느끼는 혼란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각선원은 1977년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양로원·연화노인요양원·의료복지시설 3곳과 재가노인복지센터 2곳, 모자복지시설 1곳 등 총 6곳의 자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번 인증서 획득으로 원각선원은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펼쳐온 노인복지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은 물론이고 불교사회복지의 지역사회 위상도 높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원각선원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불교사회복지 정신에 입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요구사항을 제대로 만족시키면서 맞춤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지역에서 불교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여타의 복지단체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찰 복지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노후 및 자원 축적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이사장 보연 스님은 “이번 인증으로 서비스를 좀 더 체계화할 수 있게 된 만큼, 시설 예절교육부터 다시 실시해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Tip ISO9001/2000이란?

원각선원이 받은 품질경영시스템은 유엔 산하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기술발전을 위한 정보, 지식의 국제간 교류촉진을 목적으로 제정한 국제규격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국내에서는 산업표준화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 제3자인 인증기관이 고객의 입장에서 조직의 능력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해 제품 및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규정된 요구사항은 고객의 요구사항, 법규를 포함한 규제요구사항, 조직 자체 요구사항, 규격의 요구사항 등이다.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 이사장 보연 스님(오른쪽)이 한국품질보증원 송승철 원장으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불교회 창립법회

대전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태경화)가 2월 1일 대전 시민의 안녕과 대전경찰의 발전을 기원하는 ‘대전지방경찰청 불교회 창립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전지방경찰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비구니정법회장 영진 스님을 비롯해 경찰서 불자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종 스님은 “경범죄회원들은 지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불자 경찰이 되어 달라”며 “앞으로 경찰회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법문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경승에는 철웅 스님(고산사 주지)과 우석 스님(지장사 주지), 복천 스님(구암사 주지)이 위촉됐다. 경범죄 부회장은 한광림, 김옥현씨가, 총무는 서동현씨가 각각 맡게 된다. 혜철 총청지사장

대성사 티베트 전통의식 봉행

새해를 맞아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티베트불교 전통의식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육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2월 21일 오전 10시 대성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티베트 스님들을 초청해 무자년 정월 대보름 기림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불교의식과 무자년 인등 불 밝히기 및 삼재풀이 기도를 한국과 티베트불교 전통의식으로 봉행한다. 문화공연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43)732-5560

나눔의 집 ‘피스로드’ 개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에서 2월 16-22일 ‘제8회 피스로드(Peace Load)’를 연다. 피스로드란 매년 2차례 펼쳐지는 한국과 일본 양국 대학생 및 일반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피스로드에는 일본대사관 알 수 요집회 참석, 서대문 향우사 방문, 나눔의 집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등으로 꾸러진다.

한편 피스로드는 지난해 12월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뽑은 ‘2007 공공시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031)768-0064

김강진 기자

“태안 기름제거 봉사 함께해요”

군산 동국사신도회

군산 동국사주지 총상은 2월 1일 신도 50명과 함께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현장을 찾아 방제 작업을 펼쳤다.

군산 비응항에서 선박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연도에 도착한 동국사 신도들은 일반인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연도 선착장 반대편의 절벽아래로 빗줄을 타고 이동해 돌에 붙어 있는 타르 덩어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신도들을 인솔하고 봉사에 참여한 동국사 총무 종걸 스님은 “언론에서 보았던 것보다 기름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집중되는 반면 군산 도서지역의 방



군산 동국사 신도들은 2월 1일 연도선착장 인근에서 타르 제거작업을 펼쳤다.

제 작업은 몇 년이 걸려도 복구할 수 없다”며 지역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하면 군산에서 배편과 여행사 보증을 무료로 제공한다. (063)451-1368

조동섭 전북지사장

참여불교리더스 포럼 강좌

불교사상을 시대언어로 재조명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 지도자를 꿈꾸는 재가불자를 위해 참여불교리더스 포럼이 준비한 강좌는 매월 한차례씩 열린다. 사회전반의 여론주도층

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강좌는 우리함께회관 2층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매월 첫째 화요일 오후 7시 시작된다.

강좌는 ▲3월 4일 운명철 교수(동국대)의 ‘공개토대양을 모델로 삼은 21세기 우리 민족의 세계질서 재편 전략’ ▲4월 1일 정기용 건축

가(성균관대 석좌교수)의 ‘더불어 사는 삶의 건축과 연거푸 세계’ ▲5월 6일 구해경 방송작가(아프리카 초원학교) 저자의 ‘탄자니아의 사람·자연·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 2278-3417

조동섭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거창 ‘삶의 쉼터’ 수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또 다시 시설수탁에 성공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월 4일 “경남 거창군에 건립된 사회복지시설 ‘삶의 쉼터’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시설은 총 110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이번에 수탁한 ‘삶의 쉼터’는 거창읍 송정리에 지상1층 지상3층 2개동으로 지어진 복합시설로 노인·여성시설, 장애인시설 통합시설이다. 총 공사비 120억, 1600평에 달하는 이 시설은 앞으로 거창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중점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시설수탁은 또한 그동안 서부경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불교사회복지계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삶의 쉼터’의 지원사찰은 거창과 가장 가까운 교구본사인 합천 해인사로 결정됐다.

김강진 기자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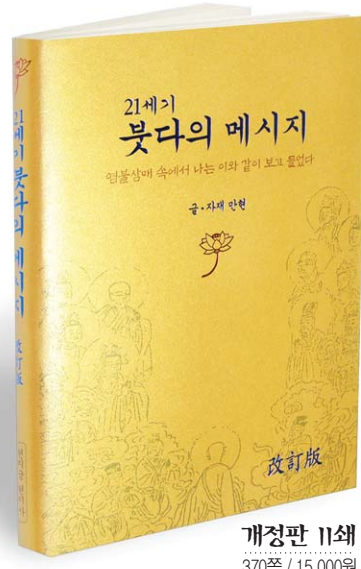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2쇄 발행 !! 개정판 11쇄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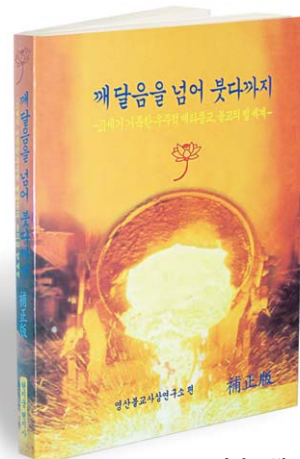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존명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尊評”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역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제 현자사 크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의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길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